https://doi.org/10.5392/JKCA.2019.19.03.213

2000년대 분단영화의 남성인물 관계 및 공간 표상 -〈공동경비구역 JSA〉, 〈의형제〉, 〈공작〉을 중심으로

Representation of Male Character and Cinematic Space in 2000s Korean Division Films -Focusing on the 〈Joint Security Area〉, 〈Secret Reunion〉, 〈The Spy Gone North〉

유재응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Jae Eung Yoo(yooje@chungwoon.ac.kr)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등장한 다수의 분단영화 중에서 간첩영화와 남성 버디무비의 성격을 띤 세 편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박찬욱, 2000), <의형제>(장훈,2010), <공작>(윤종빈, 2018)을 중심 텍스트로 하여 남북 남성주인공의 관계 변화와 주요 공간적 배경의 차이와 상징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2000년대 분단영화의 서막을 연 작품으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남북관계를 제시한다. 남북한 병사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 친구가 되고 북한군 초소에서 어울리는 것이다. <의형제>는 북에서 버림받은 남파 간첩이 생계형 간첩으로 살아가며 국정원에서 버림받은 전직 남한 요원과 동업을 하는 이야기다. 친구에서 형제로 나아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공작>에 이르면 동반자의 관계로 성숙한다.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온 세 영화들은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남북관계 변화 자체도 담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각기 다른 시기 다른 감독이 연출한 작품들이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서사를 지향한 행보를 읽을 수 있다.

■ 중심어 : | 분단영화 | 버디무비 | 간첩 | 판문점 | 서울 | 평양 | 〈공동경비구역 JSA〉 | 〈의형제〉 | 〈공작〉 |

Abstract

This article aimed at change patterns of representations of male character and cinematic space in 2000s korean division films. The concept of division film is the unique particularity film in the narrative and representation about Korean division. The Gancheop is the special character of korean films and have been reproduced in a variety of ways. In the past, Korean films have been dealt with Korean Civil War and 'special nature' of inter-korean ties. But in the 2000s, the representation of Gancheop in films has begun to change and filmed in a variety of genres such like comedy, thriller, romance and so on. <Joint Security Area>, <Secret Reunion>, <The Spay Gone North> are consistent with close relationship of male characters. The relationship is represented as friend, brother, partner. The meaning of these changes symbolizes our concept of national unification.

■ keyword : | Division Film | Buddy Films | Gancheop(Korean Spy) | Panmunjeom | Seoul | Pyongyang | 〈Joint Security Area〉 | 〈Secret Reunion〉 | 〈The Spay Gone North〉 |

* 본 연구는 2016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9년 01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3월 04일
수정일자 : 2019년 03월 04일 교신저자 : 유재응, e-mail : yooje@chungwoon.ac.kr

I. 서론 및 문제제기

분단영화는 분단상황과 분단국가에서 발생하는 소재를 다룬 분단서사의 일종이다. 이영일의 분류에 따르면, 분단영화에는 월남(越南)소재 영화, 반공영화, 군사물, 이데올로기 영화, 이산가족 영화 등이 포함된다. 그는 분단영화를 "민족의 분단시대라는 커다란 배경에서 파생한 작품경향이며 그 변모들"이라고 정의한다[1]. 김의수는 분단영화를 전쟁영화의 하위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전쟁의 전후 맥락에서 발생하는 인간 본질에 관한 의문을 던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쟁영화를 설정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분단영화에는 반공영화와 분단휴머니즘 영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 여기서 더 나아가 이병수는 남북의 소통, 치유, 통합을 지향하는 통일서사의 계기를 내포한 분단극복의 서사까지 분단서사로 보고 있다[3].

논자마다 분단영화를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 소재와 장르에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분단'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모든 소재 그리고 모든 장르가 분단영화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랭 바디우는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라고 정의한다[4]. 현재 우리의 삶은 분단 이후의 삶이며 분단 이전과 분단 이후는 완고한 단절이 가로막고 있다. 분단영화는 단절의 계기부터 단절의 양상, 단절을 극복하는 전망까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다.

분단영화는 간첩(스파이)영화, 반공영화, 전쟁영화, 탈북자 영화, 이산(가족) 영화 등을 포함하며, 스릴러, 코미디, 액션, 드라마 등의 장르와 혼성된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 등장한 다수의 분단영화 중에서 간첩영화와 남성 버디무비의 성격을 띤 세 편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박찬욱, 2000), <의형제>(장훈,2010), <공작>(윤종빈, 2018)을 중심 텍스트로 하여 남북 남성주인공의 관계 변화와 주요 공간적 배경의 차이와 상징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공동경비구역 JSA>, <의형제>, <공작>은 각각 2000, 2010, 2018년에 상영되었다, 장르적 성격은 다르지만 남북을 대표하는 남성인물들이 쌍을 이루어 스토리를 진행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적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며, 그 관계가 사적인 영역에서 점차 공적인 영역으로 변해간다는 유의미한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간 역시 남북이 대치한 판문점에서 서울, 베이징, 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세 편을 동궤에 놓고 보면 한반도 중심에서 남, 북으로 공간의 외연이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띤다.

이 세 편의 영화를 통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의 시간 동안 변해온 '북'에 대한 표상, 남북관계를 사유하는 방식을 진단할 수 있다. 세 편 모두 실제 발생한 사건을 모티프로 삼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현실적 긴장이 영화에 반영되어 있다. 여전히 북을 주적으로 간주하며 국가보안법의 위력이 작동하는 <공동경비구역 JSA>는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병사들이 암암리에 교류를 해왔다는 짧은 뉴스를 모티프로 삼은 박상연의 소설 『DMZ』가 원작이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간첩영화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인사와 접촉만으로 간첩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의형제>, <공조>와 더불어 폭넓게 보면 간첩서사에 해당한다. <의형제>는 1997년 발생한 이한영 피살사건이 모티프로 김정일 조카인 이한영은 망명 후 김정일 일가의 사생활을 폭로한 책을 발간하였다. <공작>은 2010년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2016년까지 실형을 살았던 국정원 요원 '흑금성' 실화를 소재로 만들어졌다.

영화는 현실을 추수하기도 하고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를 상상하기도 하는 매체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세 편의 분단영화는 지난 20년 동안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인물 표상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는 특정한 기획에 의해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 와 교호작용하는 영화라는 유기체적 매체가 사회 변화를 담지 해 낸 자연스러운 산물인 것이다. 영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특정 이론적 틀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자연발생적으로 탄생된 영화들 사이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함의를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여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 작품 내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어 분단영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분단영화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문이 발

표되었다. 연구사는 대략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시나리오나 서사를 분석하는 논문들이 있고, 간첩 표상이나 공간재현에 대한 연구, 분단인식에 관한 정치학적 의미 분석, 장르적인 성격 분석, 기타 신화와 상징 연구 등이 있다. 본고는 남북 남성인물이 우정을 나누고 공조를 한다는 설정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와 분단인식 변화, 실제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분단영화의 남성 인물관계 표상

2018년 대조적인 두 편의 분단영화가 등장했다. 남북 형사가 한 팀을 이뤄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는 설정의 <공조>(김성훈, 2018)와 실화인 안기부 '북풍 공작'을 모티프 한 <공작>이 같은 해에 출현한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공조>는 누적 관객수 800만에 가까운 성적을 올렸고, <공작>도 500만에 근접한 관객을 모아 두 작품 모두 흥행에 성공하였다. 대조적인 성격의 분단영화 두 편이 등장하여 둘 다 흥행이나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분단영화의 상상력이 그만큼 확장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분단을 사유하는 폭이 넓어졌고 층위가 다양해졌으며 유연성을 갖추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완전 허구의 블록버스터 액션물로 대중적 흡인력을 갖춘 <공조>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상당한 리얼리티를 구축한 스릴러 <공작>은 정반대의 축에 서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둘은 인물관계나 플롯 구성방식에서 공통된 요소를 보인다. <공조>는 평범한 40대 가장인 남한 형사 강진태(유해진)와 북한 정보부 요원 림철령(현빈)이 서울에서 극비 공조 수사를 벌이는 이야기이고, <공작>은 안기부 요원 박석영(황정민)과 북한 대외경제위 리명훈(이성민)이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척시키는 10년의 과정을 담은 영화다.

<공조>, <공작>은 둘 다 남북한 남성주인공이 짝을 이루어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는 기본 골격이 같다. 물론 서로 의도한 목적은 다른 동상이몽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모색하는 대타협에 이르게 된다. 소위 '남-남' 케미가 돋보이는 영화들로 이런 맥락은 <의형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버림받은 남파간첩 송지원(강동원)과 전 국정원 요원 이한규(송강호)가 생계를 위해 동업자로 변신한 이후 의형제 관계로 발전하는 내용이다. <의형제>는 이전 분단영화와는 새로운 차원의 신선함을 불러일으킨 영화이면서 2000년대 간첩영화의 특수성을 두루 담보한 영화이기도 하다. 남파간첩인 송지원을 최고의 꽃미남 배우인 강동원이 연기했다는 점이 파격적이었다. 잘생기고 극강의 무술 실력을 갖춘 남파간첩은 종전에는 없는 이미지로 평범한 남한 남성과 대비되어 더 두드러진 캐릭터로 비춰진다. 이런 대비는 <공조>에서는 더 강조되어 생활에 찌든 남한의 중년 형사는 북한 형사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멋있네, 씨"라고 중얼거린다.

북한 간첩을 이렇듯 기존 이미지와 달리 세련된 근육질 남성으로 설정한 것은 흥행을 염두에 둔 캐스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아 흥행은 얄팍한 전략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동시대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는 요소가 작동하지 않으면 관객을 모을 수 없다. 이 말은 미남 간첩이 영화에 등장할 수 있는 까닭은 북한을 바라보는 대중의 심리 기저에 변화가 있다는 뜻이다. 영화적 표상은 현실이 바로 대입되는 구조라기보다 무의식이 꿈이나 농담 등으로 표출되듯 압축이나 전치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

남북한 남성주인공들이 펼치는 '남-남' 케미의 원조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남한 병사 이수혁(이병헌)과 북한 병사 오경필(송강호), 이수혁의 부하인 남성식(김태우)과 오경필의 부하 정우진(신하균)이 친구관계를 이루는 이 영화는 분단영화에서 브로맨스의 단초를 보여준 경우다. 분단영화의 브로맨스는 <의형제>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공조>에서도 흔적이 내재되어 있지만, <공작>에서는 훨씬 성숙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분단영화 속 '남-남' 인물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공동경비구역 JSA>, <의형제>, <공작>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친구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동

반자로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영화는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1 공적 신분을 위반하는 사적 우정: 〈공동경비구역 JSA〉

<공동경비구역 JSA>는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봉되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연관 정보들이 알려졌는데 그 중에는 공동경비구역인 비무장 지대에서 남북 병사들이 서로 왕래를 하고 소소한 물품도 주고받는다는 것이었다.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경비구역 내 의문사 사건이라는 점과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한 병사의 교류 정황 등이 영화의 설정과 유사하다. 영화에서는 남한 병사 이수혁과 남성식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북한군 초소를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비무장지대에서 우연히 만난 네 사람은 적군이라는 신분을 벗어던지고 인간적인 우정을 쌓게 된다. 마치 이웃에 사는 형제들이 친구가 되듯 네 사람은 이념을 넘는 사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다. 이수혁과 오경필, 정우진의 첫 만남은 비무장지대 갈대밭에서 우연히 이루어진다. 심야 정찰 도중 소변을 보던 이수혁은 혼자 낙오되고 부대로 복귀하던 길에 지뢰를 밟는다. 홀로 공포에 떨던 이수혁은 구사일생 만난 오경필과 정우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모른 척 돌아가려던 오경필은 동일 틀 무렵까지 지뢰해체 작업을 하고 이수혁을 구해준다.

이수혁과 오경필, 정우진은 다시 한 번 정찰 임무 중 대면하게 된다. 이후 이수혁은 오경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작은 선물 같은 것도 마련한다. 정전 후 남북 포로가 교환되었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사이에 둔 남한 초소와 북한 초소는 영화 속 대사처럼 "방귀 소리도 들릴 지경"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어려서 야구선수생활을 좀 했다는 이수혁은 편지와 카세트 테이트 등을 돌멩이를 매달아 북한 초소 쪽으로 던진다.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기를 몇 개월 하던 이수혁은 9월 16일 북한군 초소를 찾아간다. 정우진이 편지에 한번 놀러오라는 말을 적은 것이 표면적인 계기지만 사실 이수혁은 처음부터 오경필을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어려서부터 형이 있는 게 소원"이라던 이수혁이 오경필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리워하는 태도는 마치 좋아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면모가 느껴진다. 큰 맘 먹고 북한군 초소 문을 열 때 느껴지는 비장함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두려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의 설렘 같은 것이 배어있기도 하다.

첫 방문 이후 이수혁, 오경필, 남성식, 정우진은 총격전인 발생한 10월 28일까지 천진한 어린아이들처럼 웃고 떠들고 놀이를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오경필과 정우진은 이수혁이 가져온 남한 노래를 듣고 초코파이를 먹으며 신기해한다. 미제 라이터를 선물 받고 좋아하는 북한군 모습에 남한 우위의 시각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물질적인 측면에 한정된다. 영화 전체 서사에서 보면 오경필이 보이는 인간적이고 희생적인 면모에 형으로서 의젓함이 부각된다. 불쑥 방문한 이수혁을 격하게 포옹한 오경필은 "따뜻하구만."이라는 첫 마디를 건넨다. '따뜻하다'는 말은 이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로 여러 번 반복되며 북한군 초소에서 거울로 햇빛반사를 쏘는 장면과도 이어진다. 북한 초소에서 보낸 강렬한 햇살을 쬐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남성식의 모습은 남한의 '햇볕 정책'을 거꾸로 해석한 느낌이다. 물질적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북한을 불쌍히 여기고 빛을 내려준다는 우월감을 갖는 우리들의 내면을 들춰내는 장면이다. <공동경비구역 JSA>가 분단영화로써 갖는 의미는 공고했던 냉전시대 프레임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비전을 탐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극으로 끝난 결말에서 아직은 냉전 체제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1.2 공적 적대관계와 사적 형제애: 〈의형제〉

<의형제>의 송지원은 남파 간첩으로 컴퓨터 수리업자로 가장해 살고 있다. 영화가 시작되면 그가 구형 텔레비전을 켠 채 컴퓨터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 텔레비전 모니터에서는 남궁옥분의 노래 '재회'가 흘러나오고 있다.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재회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의 심정을 담은 노래로 이 곡은 영화 후반부에도 다시 들린다. 휴대폰으로 북에 있는 아내와

통화를 하던 송지원은 메일 수신함에 새 메일이 있다는 사인을 보고 급히 전화를 끊는다. 메일은 북의 지령을 전달하는 암호를 담고 있다. 그의 반응을 통해 꽤 오랜 만에 들어온 메일임을 알 수 있다. 암호 해독은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메일에 적힌 숫자를 소설책 페이지와 줄 수에 대입해서 단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영화 끝 거의 죽은 줄 알았던 송지원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는 이미 첫 장면에 암시되어 있던 것이다.

암호는 김일성 일가 일원으로 남한에 망명한 김성학을 암살하라는 지령으로, 지원은 국제적 킬러 그림자와 함께 김성학의 아파트로 향한다. 그림자는 북한 고위층의 사생활을 까발린 책을 쓴 김성학만이 아니라 장모와 아내까지 무자비하게 살해한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송지원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그림자의 명령에 불복하고 오히려 김성학의 어린 아들을 위험에서 구출해서 데리고 나오기까지 한다. 이 잔혹한 살해 현장에서 지원의 행동은 향후 관객이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

임무를 수행하고 북으로 돌아가려던 지원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지원이 이제 생계형 간첩이 된다. 북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막노동을 하는 송지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열악한 공사판에서 일하게 된다. 시간은 6년이 흘러 작은 홍신소을 운영하는 이한규와 불법체류자가 된 송지원이 공사판에서 재회한다. 이한규는 간첩을 잡아 1억 포상금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지원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지원은 공사판 막노동보다 후한 월급을 주겠다는 말에 제의를 수락한다. 둘은 서로의 신분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속인다. 이한규의 홍신소 업무는 주로 집 나간 동남아 신부를 찾아다 주는 일이다. 송지원은 처음에는 이한규의 일이 비인간적이라 느껴 항의를 하지만 이한규는 “여기는 남의 돈으로 행복을 사는 곳”이라고 일러준다.

둘이 결정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형제애로 맺어지는 시작은 서로의 상처를 엿보게 되면서다. 남북에서 버림받은 두 사람은 여전히 과거 냉전의 프레임 속에 살고 있다. 이한규는 국정원에서도 관심 없는 간첩을 홀로 잡아 포상금을 받을 꿈에 부풀어 있고, 송지원은 수신도 하지 않는 보고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다. 이한규가 여전히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요원인데 신분을 속이고 자신을 미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둘은 현실 변화를 잘 모른 채 과거의 프레임에서 행동하는 현실착오의 모습을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정국 경색으로 둘의 착각은 다시 현실이 된다. 암살자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 송지원에게 망명한 북한교수를 죽이라는 지령을 내리는 것이다. 송지원은 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지만 이한규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갈등하다 이한규 대신 총을 맞으며 그를 보호한다. 이런 정국의 변화는 2006년 북한 핵실험 발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한 총상을 입은 송지원의 모습 다음 영화는 비현실적인 해피엔딩을 마련한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이한규는 송지원의 편지를 받는다. “형님”으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가족을 데려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과 한규를 위한 런던행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다. 재혼한 아내를 따라 런던에 살고 있는 딸을 늘 그리워하는 이한규를 위한 선물인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런던행 비행기에서 이한규와 송지원 가족이 조우한다. 이때 비행기 안은 이념을 탈피한 제3의 판타지 공간이 된다.

1.3 공과 사를 넘는 동반자 관계: 〈공작〉

2000년대 분단영화에서 가장 낙관적이고 진보적인 전망을 담고 있는 영화가 <공작>이다. <공동경비구역 JSA>가 북한을 ‘적’이 아닌 친구의 위치에 놓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의형제>는 남과 북이 형제 관계를 회복하는-분단 이전으로 돌아가는-미래를 상상하는 도약을 이루었고, <공작>은 남북관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분단의 극복과 상생의 길은 무엇인지 성찰하고 있다.

기무사 군인이던 박석영(황정민)은 1992년 안기부로부터 대북공작원 제의를 받는다. 1989년부터 가속화 되고 있는 북핵 개발을 저지해야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된다는 말에 박석영은 애국충정으로 공작원 제의를 수락한다. 전역한 박석영은 북한을 속이기 위한 본격적인 신분세탁 작전을 펼친다. 소싸움 판에 가서 도박을 하고 대낮부터 만취해 주정을 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

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반듯한 군인 이미지를 벗어던진 박석영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조선족 출신 핵물리학자를 한국으로 입국 시키는 것이다. 그는 북한 핵개발 주도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그를 통해 북한 핵개발 진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작전이다. 첫 작전 성공 이후 주어진 다음 임무는 북한 권력층에 침투하는 것이다. 북핵에 대한 더 상세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북 고위층을 통해 북한에 침투해 핵시설을 직접 사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작전이다. 박석영의 본격적인 대북 침투 업무는 1995년부터 시작된다. 무역업자로 변신한 그는 단동에서 일 년 이상 머물며 남한에 수입할 북한 물자를 수소문하고 다닌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대북요원 '흑금성'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로 영화에서처럼 베이징을 본거지로 대북간첩 활동을 하다 이중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다. 영화의 주요 스토리는 1996년부터 1997년 대선 시점까지 벌어진다. 북한은 중국산 먹거리를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남한에 수출하다 발각되어 국제적인 말썽을 일으킨다. 이 일로 베이징 주재 북한 외화벌이 사무소에서는 중국 공안에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를 빌미로 박석영이 북측에 접근하게 된다. 북한 외화벌이의 총책을 맡고 있는 리명환은 박석영과의 첫 만남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철저한 자본주의 장사꾼으로 변신한 박석영의 대담한 언행에 리명환은 "요즘 보기 드물게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이후에도 몇 번 리명환은 북한 사람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말을 한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일단 마음이 통하면 "빤스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솔직하고 따뜻한 리명환의 성품을 알아 본 박석영은 자신의 임무와 상대를 속이는 인간적인 배신 사이에서 고뇌한다. 끝까지 자신을 믿어 준 리명환에게 거짓말을 하고 영변 핵시설 자료를 빼내던 박석영은 결국 정체가 들통 난다.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 '북풍 공작'을 했던 여당은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해 흑금성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그를 이중간첩으로 몰아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박석영이 평양에 머무는 동안 남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북풍 공작이 무산된 정국에서 야권 후보 김대중이 당선된다. 텔레비전으로 대선 결과를 지켜보던 리명환은 박석영을 집으로 초대한다. 향후 판세를 읽은 리명환이 마지막으로 박석영을 대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술과 안주를 마련한 리명환은 뒷면에 '호연지기'라는 글자가 새겨진 넥타이핀을 선물한다. 이 넥타이핀은 영화 마지막 드디어 남북합작 광고촬영이 이루어지는 날 박석영이 매고 온 넥타이 위에서 빛난다.

리명환은 박석영의 정체를 알고 분노하며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지만 결국 쏘지 않는다. 대신 리명환은 "남조선이란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요. 어떻게 정보국에서 자신의 공작원을 스스로 노출시킬 수 있는지" 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한다. 리명환은 박석영과 자신은 모두 "각자의 조국"을 위해 일한 것임을 인정하고 박석영에게 가짜 신분증을 쥐어준다. 리명환의 발언은 두 개의 조국(나라)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전 이후 오래 동안 남과 북은 상대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주적, 괴뢰 도당 등으로 위치시켰다. 남과 북이 권력 유지를 위해 '적'을 설정하고 국민 통합을 조작했던 인식을 벗어던진 시각이다. 공적인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충되는 입장이 있기 했지만 리명환과 박석영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상생의 길을 추구할 때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진심은 너무 평범하고 상투적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념보다 힘이 세다.

2. 분단영화의 공간적 의미

영화에서 공간적 배경은 단지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영화에 재현된 공간은 인물이 행동하는 장소이자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언으로 배치된 이미지의 집합이다. 이 글에서 분석 텍스트로 삼은 세 편의 영화에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인 판문점, 서울, 베이징, 평양은 제마다 각기 다른 지정학적 의미를 지닌 장소다. 장소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이해되는 고립된 단위가 아니다. 특정 장소는 그 장소가 세계의 나머지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공간이라는 용어는 영토의 통제, 특정 지역 내의 대상목록, 대상들 간의 위계와 거리 등

과 같은 쟁점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둔다[6]. 1990년대 이후 분단 소재 영화에 재현된 공간에 대해서는 정현주, 정희선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7].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세 편의 분단영화에서 장소와 공간은 갈등과 화해가 벌어지는 극적인 배경이다. 남북 긴장의 최고 상징인 판문점에서는 의외로 인간적인 장난이 오가고, 첩보 작전의 요충지 베이징에서 이념을 초월한 인간애를 확인하기도 한다. 즉, 이들 장소는 주인공들이 세계를 경험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측면이 작동하는 장소인 것이다[8]. <의형제>에서 남파간첩은 남북 어느 장소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결국 제3국행을 택한다.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그리고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9]. 그런 면에서 그의 방황과 출국은 사적으로는 의형제까지 맺을 만큼 마음을 열었지만 여전히 분단 현실은 언제든지 돌변할 여지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 준다.

2.1 분단의 상징 공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이 영화의 공간은 단순하다. 남북한 병사가 처음 마주치는 비무장지대는 방향을 분간하기 어려운 폐허이자 피아를 구별하기 힘든 공간이다. 분단을 상징하는 이곳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 순수한 자연의 모습으로 보존된 곳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상흔인 지뢰가 여전히 터지는 위험한 장소다. 지뢰를 밟고 오도가도 못 하는 이수혁 병장을 순수하게 도와주는 오경필 중사의 선의가 이념을 넘어 작동할 수 있는 특수한 장소이기도 하다. 영화의 주요 공간인 남북한 초소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100미터쯤 되어 보이는 돌다리만 건너면 바로 적국에 닿을 수 있는 셈이다. 네 사람의 만남은 북한 초소에서 이루어진다.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고 사격 연습용 표적에 US라는 글자가 새겨진 정도를 제외하면 남한 초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지도자의 초상화 아래서 네 사람은 정치체제에 구애되지 않고 인간적인 친분을 나눈다. 대화 도중 가끔 월남이나 월북을 권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신념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오히려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정을 나누고 싶은 소원에서 비롯된 말로 들린다.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이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분단의 상처가 아로새긴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 영화에는 버즈 아이 앵글로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찍은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인간이 그어놓은 금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판문각'이라는 건물을 세우고 한쪽은 '자유의 집'이라는 누각을 세운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들 장난처럼 보인다.

오경필과 이수혁이 '침뱉기 놀이'를 하는 장면은 일견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 같지만 이념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진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분단의 역사에 침을 뱉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오경필이 농담으로 건네는 "그림자 넘어왔다. 조심하라우." 라는 말도 씁쓸한 웃음을 자아낸다. 그림자까지도 넘으면 안 되는 견고한 경계가 실은 한 발짝만 움직이면 넘나들 수 있는 줄긋기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2.2 분단의 무화 공간, 서울: 〈의형제〉

<의형제>의 주된 사건은 서울에서 벌어지며 이한규와 송지원이 활동하는 지방 소도시가 지명 없이 가끔 등장한다. 서울에서 6년째 간첩으로 활동하던 송지원이 모처럼 지령을 받고 출동한 곳이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다. 간발의 차이로 서로 어긋난 이한규와 송지원은 아파트 앞에서 잠시 스쳐지나간다. 이후 송지원은 북에서 버림받고 간첩이지만 간첩 아닌 모호한 정체성으로 생계유지를 해나가고, IMF 여파로 구조조정 대상이 된 이한규 역시 국정원을 떠나 흥신소로 밥벌이를 이어간다. 북에 아내와 아이를 두고 있는 송지원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고 이한규는 이혼한 아내와 살고 있는 딸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체된 가정 형편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두 남자의 관계는 동업자에서 형제로 발전한다. 처음에 이한규는 간첩 포상금을 노리고 송지원에게 접근하고 지원도 북에 보낼 돈 때문에 이한규의 제안을 수락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에는 연민과 공감대가 형성된다. '형'이라

고 불러보라는 이한규의 제안에 코웃음 치던 송지원은 마지막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님'이라는 호칭을 부른다. 서로를 속고 속이는 관계가 다 들통 난 이후 가식과 위장을 벗어던진 두 사람은 진짜 형제처럼 서로를 생각해주게 된다. 이한규는 자신의 부모 제사상에 송지원 부모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절을 한다.

이한규가 살고 있는 복층 오피스텔은 가정을 이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공간이다. 살림을 하는 장소라기보다 일을 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정도의 공간이다. 처음 이한규와 송지원이 오피스텔에 동거하게 되었을 때 둘은 서로를 의식하고 의심해서 맘 편히 잠들지 못한다. 자는 척하다가도 상대가 나가면 후다닥 일어나서 동태를 살피고 감시를 한다. 하지만 동남아 신부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준 대가로 받은 닭을 잡아 백숙을 끓여 먹으며 두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편안한 상태가 된다. 그때 비로소 이한규의 삭막한 오피스텔은 정이 흐르는 가정이 된다.

2.3 분단을 넘는 상생의 공간, 베이징과 평양: 〈공작〉

안기부 대북공작원 박석영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곳은 단동이다. 박석영은 북한 물자를 수입하는 무역업자처럼 위장하기 위해 단동에서 북한 물건 브로커를 만나고 다닌다. "길가에 똥 천지고 음식도 느글느글"한 단동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 땅이다. 단동에 대한 박석영의 평가처럼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공산권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후 베이징으로 거점을 옮긴 박석영과 북한 외화벌이 총책 리명환은 베이징 상가를 걸으며 남북 협력사업을 논의한다. 각자의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두 사람에게 베이징은 분단을 극복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남북합작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리명환은 박석영에게 평양행을 권한다. 김정일과 단독 면담을 주선한 것이다. 북한에서 광고촬영을 한다는 사업 구상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결정 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프로젝트다. 김정일의 허가가 떨어지자 북한 곳곳을 촬영 로케이션 장소로 방문한다. 박석영은 영변 핵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고구려 고분 핑계를 대고 구룡강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한다. 구룡강 근처 장마당은 굶주린 사람들과 시체더미로 참혹한 광경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처참한 실상을 재현한 이 장면은 개방을 통해 경제 개혁을 이루고 싶은 리명환의 충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려준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안기부의 존속을 위해 북한을 돈으로 이용하는 남한 권력층의 부도덕하고 부패한 모습에 비해 리명환의 애민정신과 김정일의 결단은 오히려 윤리적인 태도로 느껴진다. 비무장지대 무력 도발을 응해준 김정일을 옹호할 수는 없지만 1997년 '북풍 공작'을 거절하는 최소한의 윤리적인 선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진행하던 남북협력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북풍 공작을 모르고 있던 박석영은 "베이징이 서울, 평양과 따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다. 박석영의 애국충정이 너무 순진해 보이기도 하지만 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필수적인 덕목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작>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픽션을 가미한 영화지만 어떤 면에서는 통일서사의 미래를 사유하는 영화라 할 수 있다.

3. 분단영화의 장르 변주 효과와 의미

<공동경비구역 JSA>, <의형제>, <공작>은 기본적으로 스릴러다. 분단 상황에서 남과 북 인물이 만나는 일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위험하고 비록 공적인 임무를 위한 것이어도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긴장을 조성하고 서스펜스 효과를 창출하는 스릴러는 서사를 전개하는 적절한 장르가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 영화는 스릴러 바탕에 각기 다른 장르적 성격으로 변주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미스터리 구조를 갖고 있다. 스위스에서 파견된 중립국 조사위원 소피/장 소령이 살인사건을 풀어가는 플롯이다. 영화 도입부 북한군 초소에서 총성이 들리고 총알 자국이 난 벽으로 빛이 새나온다. 누가 누구를 쏜 것인지 모르는 의문의 총격전을 서두에 배치한 것은 추리물 서술 방식 중 사건을 먼저 보여주는 기법이다. 서인숙은 이에 대해 할리우드 탐정영화의 내러티브 공식을 빌리면서 한국적 담론과 서사 내용이 혼성

된 모습이라고 평한다[10]. 탐정의 역할을 맡고 있는 장 소령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남북 정권 둘 다 사건의 은폐를 원하고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된다. 박상연의 원작소설에서 장 소령 역할은 베르사미라는 남성인물로 그려진다. 인민군 아버지를 둔 성장배경은 동일하나 영화에서는 성별이 바뀐 것이다. 다른 주인공 네 명이 남성인물이다 보니 차별성을 주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결국 장 소령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만 이수혁을 보호하기 위해 위증을 하게 된다. 사건을 해결하는 미스터리 구조지만 풀어낸 답을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스터리 양식은 비극적인 죽음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의형제>는 화끈한 액션도 자주 등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미디의 틀 안에 있다. 현실 사건에서 모티프를 구하긴 했지만 버림받은 남파 간첩과 전직 국정원 요원이 의형제가 된다는 설정은 비현실적이다. 코미디는 개연성 없는 행위와 개연성 없는 형식을 용인하는 장르다[11]. 이 영화의 결말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판타지지만 이는 현실원칙을 위배하는 서사라기보다 현실을 극복하는 전망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환상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기반하고 또 그것에 의해 지배되는 이야기이다. 즉 환상은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을 오히려 사실 그 자체로 변형시키는 서사적 결과물이다[12].

<공작>은 앞의 두 영화와 달리 코믹한 요소는 전혀 없다. 매우 진지한 정치 스릴러물로 실화를 모티프로 했으며 남북관계도 현실 자체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영화에선 어떤 인위적 플롯 장치보다도 남북 관계 자체가 스릴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일촉즉발의 대치관계 속에서 공작원 흑금성과 북한 해외지사 리차장의 우정과 연대가 공감을 이끌어낸다. 스릴러로서 아슬아슬한 장면도 몇 차례 등장한다. 이 영화에서 스릴과 서스펜스는 흑금성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상황에서 빚어진다. 북파 공작원 신분인 흑금성이 주인공 이다보니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공동경비구역 JSA>, <의형제>, <공작>은 분단영화라는 큰 틀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 미스터리 구조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코미디 장르를 강조하는 등의 차이점들이 있다. 이런 장르적인 변주는 냉전의 균열, 냉전의 해빙, 냉전 극복의 전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중서사적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Ⅲ. 결 론

<공동경비구역 JSA>나 <의형제>는 남북한 남성인물들의 관계가 영화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소위 '남-남' 케미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관계는 분단영화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의인화하는 역할을 한다. 친구에서 형제로 나아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공작>에 이르면 동반자의 관계로 성숙한다. 남북의 남성인물들 사이에 싹트는 우정이나 연대가 친구에서 형제 그리고 다시 동반자로 점차 확대된다는 일관된 맥락에서 세 영화는 당대 대중들이 지향하는 남북인식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공동경비구역 JSA>, <의형제>, <공작>은 약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온 영화들이다. 이 영화들은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남북관계 변화 자체도 담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 준다는 의미가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가 북한을 '적'이 아닌 친구의 위치에 놓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의형제>는 남과 북이 형제 관계를 회복하는-분단 이전으로 돌아가는-미래를 상상하는 도약을 이루었고, <공작>은 남북관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분단의 극복과 상생의 길을 무엇인지 성찰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이영일, "분단비극 40년 영상 증언한 한국 영화," 북한, 제150호, p.106, 1984.

[2] 김의수, *한국 분단영화에 관한 연구: 분단영화의 장르적 정의와 진화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7-18, 1999.

[3] 이병수, "분단 트라우마의 성격과 윤리성 고찰,"

시대와 철학, 제22권, 제1호, pp.47-70, 2011.
[4] 알랭 바디우, 이종영 역, *윤리학*, 동문선, pp.80-88, 2001.
[5] 프로이트, 윤희지, 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pp.23-56, 1997.
[6] 콜린 플린트,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pp.21-27, 2007.
[7] 정현주, 정희선, "남북 분단을 소재로 한 국내 영화 속 정치적 담론과 장소의 재현," 문화역사지리, 제26권, 제2호, pp.83-103, 2014.
[8] 에드워드 렐프, 김덕형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p.25, 2005.
[9] 에드워드 렐프, 김덕형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p.95, 2005.
[10] 서인숙,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혼성서성과 비극성에 대한 탈식민지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11, pp.116-124, 2008.
[11] 스티브 닐, 프랑크 크루트니크, 강현두 역, *세상의 모든 코미디*, 커뮤니케이션북스, p.28, 2002.
[12] 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p.12, 2001.

저 자 소 개

유 재 응(Jae Eung Yoo) 정회원

-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사)
- 2007년 8월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미디어학과(영상예술석사)
- 2008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예술, 영상매체